**시메오네가 부른다…아틀레티코, 맨유 출신 '악마의 재능' 영입 관심! 마르세유 이적료 '1225억' 책정**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M)가 ‘악마의 재능’ 메이슨 그린우드(마르세유)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

스페인 ‘피차헤스’는 29일(이하 한국시각) “ATM은 마르세유의 그린우드를 눈여겨보고 있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의 가치를 6500만 파운드(약 1225억원)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한 그린우드는 2018-19시즌 1군 무대에 데뷔했다. 2019-20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고, 49경기에서 17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2021-22시즌 도중 커리어가 급격히 추락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1군에서 퇴출됐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맨유는 그린우드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2023-24시즌을 앞두고 라리가 헤타페로 임대를 떠났다. 그린우드는 36경기에서 10골 6도움을 올리며 구단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시즌 마르세유로 완전 이적해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다. 36경기에서 22골 5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앙 득점왕에 올랐고, 마르세유는 리그 2위를 차지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을 확보했다.

그린우드는 올 시즌에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그앙 6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공격포인트 공동 1위에 올라있다.

이러한 활약으로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ATM이 그린우드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시즌 도중에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등 라리가 강팀들과 연결된 바 있으며 같은 리그앙 소속의 파리 셍제르망(PSG)도 관심을 보였다.

관건은 이적료다. 마르세유는 핵심 공격수를 쉽게 내줄 계획이 없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그린우드와 5년 계약을 체결했고, 이적을 원한다면 6500만 파운드(약 1225억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